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15’  
공통 퀵커머스에 골목상권 짓눌리지 않도록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대” 공약

- 배달앱·유통대기업의 ‘퀵커머스’ 진출에 직격탄 맞은 골목상권 보호 필요
- 음식 배달로 출발해 동네마트·전통시장까지 퀵커머스로 영역 확장 중인,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성과 있는 전국단위 공공배달 플랫폼 구상
-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가, 소비자 혜택 확대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1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골목상권에 온라인플랫폼과 근거리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소비자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배달앱, 유통 대기업이 퀵커머스(근거리 즉시 배송)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며, 과거 대형마트가 SSM 형태로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골목상권이 처한 위기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이런 현상에 대비하고자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을 출시한 바 있다” 면서 “배달특급이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고, 음식점 배달부터 동네마트와 편의점, 전통시장 등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액도 증가했다” 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골목상권의 퀵커머스 시장 진입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의 공공배달 플랫폼 개발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달특급으로 그 효과와 실적을 확인한 만큼, 동네슈퍼 및 소매점 등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공공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모두를 챙기겠다는 의도이다.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모바일 주문만으로 동네슈퍼와 소매점으로부터 생필품과 과일, 채소 등을 간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약에는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부분도 포함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포항, 창원, 부천의 온라인 배송시스템 시범사업 성공을 뒷받침하고 사업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화폐를 결합해서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골목상권에 돈이 더 많이 도는 구조를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배달특급 전국 확대와 공공배달 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매출증대, 소비자 편익 상승 등 민생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끝)

담당자 : 정책본부 송용한(010-3269-1334)

## [별첨] 쿼커머스 운영 현황과 시범사업 설명자료

### o 온라인플랫폼의 쿼커머스 운영현황

회사	플랫폼	쿼커머스	비고
DH	배달의민족	B마트	물류 거점수 32개
	요기요	요마트	GS리테일·퍼미라·어퍼너티에퀴티파트너스 권소사업에 매각 추진
쿠팡	쿠팡이츠	쿠팡이츠카드	서울 송파구 일부 서비스
GS리테일	우리동네 딜리버리	우동마트	물류 거점수 50000여개로 추정(편의점)
롯데쇼핑	롯데슈퍼	퇴근길배송	-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시간 배송	-
CJ올리브영	올리브영	오늘드림	-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서비스 예정	-
현대백화점	현대식품관 투움	서비스 예정	-

### o 산업통상자원부 풀필먼트(근거리배송 서비스 포함) 시범사업 소개자료



